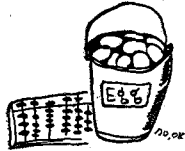


시 리 즈 2

양계경영 성과의 경영요인



민 병 렬

<농업경영연구소>

3. 체란계 사육수수

체란양계에 있어서 사육수수는 양계경영의 규모를 측정하는 척도로 사용될 수 있다.

농업생산에 있어서 규모는 수익과 비용의 두 가지 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경제학자들의 관심사가 되어 왔다. 이러한 규모의 확대는 모든 생산요소 즉 자본, 노동, 토지등을 같은 비율로 증가하는 경우와 토지등 한 생산요소를 고정시키고 다른 생산요소를 집약적으로 증투하는 경우 즉, 집약도를 높이는 경우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경영규모를 확대하는 것과 수익과의 관계를보면 경영규모가 확대됨에 따라서 일정한 비율로 수익의 증가를 가져오는 경우 즉 생산요소를 배가하여 증투 했을때 생산물도 생산요소를 배가하여 증투한 비율만큼 더 생산되는 경우와 경영규모가 확대됨에 따라서 수익이 점점 작은 비율로 증가하는 경우 즉, 총체적인 생산요소가 배가되어 투입되어도 생산물은 배가 되지 않고 더 작은 비율로 늘어 나는 경우, 이와는 반대로 규모가 커짐에 따라 생산요소가 투입되는 비율보다 더 높은 비율로 수익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다. 농업생산에서 어느 한 자원을 고정시켜 놓고 생각해보면 생산규모를 확대시키는 초기 단계에서

는 생산요소의 증투에 따라 점점 더 많은 생산물을 얻을 수 있으나(한계생산력이 높다) 그 이후에는 점점 작은 비율로 생산물이 증가되는 것이 보통이며 이를 수확체감의 법칙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다.

어쨌든 농업생산에 있어서 경영규모와 수익과의 상관관계로서는 이상 설명한 세가지 기본 관계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과연 농업생산에 있어서 어느 것이 일반적으로 작용하고 있을까, 이제까지의 경험적 연구에 의하면 경영규모와 수익과의 관계는 생산요소를 증투하는 비율보다 점점 더 작은 비율로 수익이 증가되거나 일정한 비율로 수익이 증가 되는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닌것 같다.

다음으로 경영규모와 단위당 비용과의 관계는 많은 경제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왔는데 이에 대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은, 경영규모가 커질수록 단위당 평균비용이 적어진다는 것이며 또한 대경영은 경쟁에 있어서 소경영 보다 유리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생산요소가 동일한 비율로 증가할 때 경영규모에 대하여 일정한 비율에서의 수익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다면, 경영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평균비용은 적어진다는 결론이 될 것이고 이와는 반대로 경영규모 확대에 대하여

○ 양계경영 시리즈 ○

점점 작은 비율로 수익이 증가된다면, 그 경영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평균비용은 점점더 커질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모든 생산요소가 같은 비율로 증투되었을 경우를 전제로 타당할 것이며, 사실상에 있어서 경영규모와 생산비의 관계를전 반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는 것이다.

농가의 경영규모가 커지면 단위당 평균비용을 적게하는 요인은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이중에서 세분할 수 없는 생산요소는 경영규모가 커질수록 보다 유리하게 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농업 기계를 노동 경영에 알맞도록 만들기가 어려우므로 그러한 기계를능률적으로 이용하고자 할때는 생산규모를 크게해야 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농업생산에 있어서 경영규모가 커짐에 따라 어느범위 까지는 생산비가 낮아지는 것이 일반적인 사실이다. 특히 농업이 기계화되어 감에 따라 이러한 현상이 실증되게 되었고 많은 농업경제 학자들은 소경영 즉 가족 노작적경영은 배제당할 것이라고 오래전부터 경고해 왔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소농경영이 실존하고 있는 것은 농업생산을 통하여 최대의 수익을 얻으려는 것 보다는 가족에 대한 효용의 최대화를목적으로 하거나, 다른 직종에 적합치 않은 성격 또는 건강 때문에 조그만 농장에서 적은 수입으로 만족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소농장이긴 하지만 경영주가 되었다는 만족감으로 영위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는 경영이라기 보다는 가족노동을 비용으로 간주하지 않고, 가족노동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나 자본이 부족하고 다른 직업에 고용될 기회가 결여되었거나, 직업전환에서 오는 불안감 등을 생각하기 때문에 영세규모의 농업이나마 그들의 생업으로 영위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이제 까지는 경영규모에 대한 경제적 개념을 설명하였거니와, 이제 채란양계 경영규모와 수익, 비용을 중심을 생각해 보기로 하겠다.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양계는 농촌의 잉여 노동력인 부녀자의 노력을 선용할 수 있다는 것과

자본의 회전이 빠르며 농가의 현금수입원이 되고 적은 자본으로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농가의 부업으로서 상당한 번창을 가져오다가 최근엔 전업 및 기업양계업자가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다수사양만 하면 유리하다는 생각으로 노력, 기술, 자본, 그지역의 경제적조건 등을 고려 하지도 않고 규모를 확대시킨다면 수익의 증대는 그만두고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양계규모를 확대할때는 이때 까지 보다 많은 노력과 투자로서 그전 보다 더욱 많은 울의 소득을 올릴수 있도록 생산성을 제고시키며 생산된 생산물을 잘 팔며 단위당 생산비를 절감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별 경영을 확대하여 경영의 합리화를 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양계의 집단화 내지는 공동화로 이러한 유리성을 누릴수 있도록 함도 좋을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에서의 농가조사결과를 들어 규모와 수익, 비용과의 관계 살펴보기로 하겠다.

먼저 사양규모와 수익과의 관계를 볼때 우리나라에서 조사된 결과에 의하면 경영규모가 커짐에 따라 단위당 수익이 점점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표 참조).

사양수수와 양계 소득

| 사 양 수 수 | | 호당 양계 소득 | 100수당양계소득 |
|---------|-------|----------|-----------|
| 구 간 | 평균 | | |
| 100수미만 | 70 | 32,200 | 45,500 |
| 100~299 | 180 | 77,000 | 65,300 |
| 300~699 | 810 | 214,700 | 62,200 |
| 700수이상 | 1,060 | 250,700 | 23,600 |
| 계평균 | 310 | 116,900 | 36,700 |

자료 : 농협 양축 양감
경영조사보고 1969

그러나 일본의 농가 조사 결과는 규모가 커짐에 따라 단위당 수익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표 참조).

사양 수수와 양계 순수익

| 규모별 환산 산란계 100수당 순수익 | | 규모별 환산 산란계 100수당 순수익 | |
|-------------------------|----------|-------------------------|----------|
| | (일화 : 원) | | (일화 : 원) |
| 50수미만 | △22,877 | 1,000~1,999 | 42,602 |
| 50~99 | △17,270 | 2,000~2,999 | 50,875 |
| 100~299 | 10,003 | 3,000수이상 | 52,891 |
| 300~499 | 27,295 | 총평균 | 28,616 |
| 500~999 | 39,540 | | |

다음으로 산란계 사육수수와 계란생산비에 대한 조사자료로 농협중앙회가 1967년 경북 달성과 영천에서 조사집계 한 결과를 보면 규모증대에 따른 유의적인 변동은 없었으나 단위당 비용이 어느 단계까지는 점점 감소하나 일정수준 이상에서는 오히려 비용이 많이 드는 결과를 보였다(표 참조).

사양수수와 계란 생산비

| 사 양 수 수 | 계란생산비(개당) |
|---------|-----------|
| 100수 미만 | 8.23 |
| 100~299 | 7.26 |
| 300~699 | 6.89 |
| 700수 이상 | 7.71 |
| 계 평균 | 7.35 |

자료 : 농협양축 양잠 경영조사 보고 1969

한편 일본의 자료를 보면 규모가 커짐에 따라 점점 계란 생산비가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표 참조)

사양수수와 계란 생산비

| 사양수수 | 계란생산비 (100kg당) | 사양수수 | 계란생산비 (100kg당) |
|---------|-------------------|-------------|-------------------|
| | (일화 원) | | (일화 원) |
| 50미만 | 19,615 | 1,000~1,999 | 14,478 |
| 50~99 | 18,524 | 2,000~2,999 | 13,786 |
| 100~299 | 16,728 | 3,000수이상 | 13,890 |
| 300~499 | 15,276 | 계 평균 | 15,300 |

이상의 조사자료에서 볼 수 있는 바와같이 경영규모와 수익 또는 경영규모와 비용간에는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으나 경제원

칙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만은 아닌것도 알 수 있다. 여기서 경영규모와 생산력 자본회전을 노동효율과의 관계를 농협 조사결과로 검토해 보면 생산력의 경우 수당 계란 생산량이 규모가 높아짐에 따라 낮아지며 자본회전은 점점 높아지다가 700수 이상 규모에서는 유동자본의 효율이 낮아 자본의 회전이 점차 떨어지고 있으며, 100시간당 산란수와 조수입은 규모가 높아짐에 따라 점점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표 참조).

사양수수별 산란율 자본회전율 노동보수

| 사양수수별 | 산란율 | 자본회전율 | 100시간당 | |
|---------|-------|-------|--------|---------|
| | | | 산란수 | 조수입 |
| 100수미만 | 52.6% | 1.21회 | 1,160개 | 12,100원 |
| 100~299 | 48.2 | 1.30 | 1,610 | 18,600 |
| 300~699 | 47.1 | 1.36 | 1,780 | 22,500 |
| 700수이상 | 42.2 | 1.33 | 2,020 | 28,300 |
| 평균 | 46.3 | 1.31 | 1,720 | 21,500 |

자료 : 농협 양축 양잠경영조사보고 1968

따라서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규모를 확대하고자 할때는 경영주의 경영능력, 기술, 자본 기타 경제적 또는 경제외적인 조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단위당(산란계 한마리당)의 생산력 및 생산성을 증대시킴은 물론, 모든 생산요소의 생산성을 증대시킬수 있는지의 여부를 검정한 후에 규모확대를 결정해야 하며, 단순한 생각으로 규모를 확대할 경우에는 적은 규모에서 단위당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집약적 관리를 한 경우만도 못한 결과를 초래하기 쉽다.

그러면 어느정도의 규모가 최대의 순수익을 얻을 수 있는 적정규모가 될것인가?

만일 평균 비용을 척도로 생각한다면 단위당 평균비용이 가장 낮은 점에서 적정 규모가 결정될 것이다. 그러나 적정규모는 경영능력 생산요소의 형태량, 및 농산물가격등에 의해 달라지는 것이므로 일률적으로 얼마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